

1996年度
行政事務監査

서울特別市城北區議會 地域開發委員會會議錄

城北區議會事務局

被監査機關：都市整備局，建設局，東仙2洞，鍾岩1洞

日 時：1996年12月2日(月) 午後4時
場 所：區廳5層講堂

(16時42分)

○委員長 李鍊垈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개발위원회 위원장 이연경의원입니다.

지난 11월 26일부터 7일간에 걸쳐, 성북구의회 지역개발위원회에서 실시한 도시정비국과 건설국, 그리고 동선2동과 종암1동사무소에 대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진지하고 의욕적인 자세로 감사활동을 해 주신 지역개발위원회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또한 바쁘신 구정업무중에도 많은 자료의 제출과 성실하게 감사에 응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감사는 제2대 성북구의회의 전반기를 결산함과 아울러, 1996년도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실시된 행정사무감사였으며, 감사계획에서도 밝혔듯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구정운영의 전반적 실태의 파악과, 예산의 집행상황등을 점검하여, 지역과 의회에서의 의정활동 자료와 정보의 획득은 물론, 미진하고 불합리한 행정의 집행 사례를 지적하여 시정제함으로써, 주민의 뜻이 행정에 반영되고 실천되는 지방자치의 근본적 이념 정립에 한 몫을 다하자는데 그 의의가 있다 할 것입니다.

이번 감사의 방향은, 특정사안과 업무에 국한하기보다는, 민의의 반영을 우선하였으며, 규율에 의한 합법성보다는, 공익을 위한 효율성과 효과성, 민주성을 더욱 중시하였습니다. 이러한 목적과 이념과 방향속에

실시한 이번 감사를 종료하는 시점에서, 지역개발위원회의 소관업무에 대한 총괄 강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감사자료의 제출에 있어 간혹 그 분량이 방대한 자료도 요구되었다고는 하나 일부 자료에 있어서는 형식적이고, 구체성이 결여된 부분이 있었으며, 더러는 상호연관되는 자료가 서로 상치되는 등 불비하여, 감사현상에서 상세 자료를 다시 요구하는 사례등은 감사에 능률성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되었습니다. 반면, 감사자료를 편집함에 있어 각국, 실, 과별로 분류하여 페이지를 부여한 것은 매우 성의있게 작성된 부분이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감태도의 문제입니다. 수감태도에 있어서는 국·과장의 성의있고 진솔한 답변태도와 충분한 사전준비에 의한 구체적 자료의 제시등은 지난해 보다도 더욱 향상된 느낌이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가 그 연륜을 쌓아감과 아울러, 행정의 민주성이 날로 정착되어 가고 있는 과정에 중간관리자의 소신과 책임의 비중이 증대되어 가고 있는 현상이라고 판단되었습니다. 이러한 반면에 일부 직원들의 인사이동으로 업무파악이 부족하여 의원의 질의에 충실히 답변할 수 없는 사례가 있었던 바 비록 보임기간이 짧다고 하는 부득이한 사유는 인정되나 향후 이러한 문제는 시정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번 감사기간중 피감사기관의 수감태도는, 대체로 양호하였다고 평가됩니다.

이어서 구행정 업무의 일반적 집행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 피감사부서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

는 행정집행의 양태는, 제도와 규율에 속박되어, 자율적 민주성에 의한, 능률적 행정집행이 결여되어 있다는 사실을 적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대 행정의 특징은, 공익성과 공개성의 원칙속에 그 기능이 확대되고 전문화되는 경향을 띄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 행정의 역할은, 이제 주민의 보호와 지원, 그리고 봉사와 규제의 기능이 융합하는 가운데, 주민앞에 군림하는 행정이 아니라, 행정의 재량권이 제한되는 가운데 주민 수혜의 극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정비국과 건설국의 업무가 기술적이고, 법제화된 업무가 대부분인 점은 양해한다 하더라도 이제는 자치의 시대입니다. 관행과 답습을 배제하고, 형평과 비례가 존중되어야 하며, 민주가 수렴되고 다중이 수혜를 받는 가운데 개인의 이익이 보장되는 행정의 전개가 현대행정의 지향하는 목표인 것입니다. 규율에 지나치게 익숙된 고식적 행정집행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는 행정이 아니라, 어려운 부분보다는 쉬운 것부터, 소수의 이익보다는 공익을, 관의 입장보다는 민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는 자세로 성북구 행정이 실천되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우리 공직사회가 오랜 관행과 제도와 조직속에서 다져온 틀을 일시에 개선하기란 어려운 것입니다만, 점차 이러한 문제는 보완하고 개선해 나가야 할 부분으로서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판단되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행히도 이번 감사의 피감사기관인 도시정비국과 건설국에서는 이러한 행정특성을 이해하고 실천하고자 하는 노력을 많은 부분에서는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별 강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정비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도시정비국은 도시개발의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동시에 겸비한 분야로서, 지난 11월 26일과 27일, 양일간에 걸쳐 실시된 도시정비국 소관 감사에 있어서는 국장이하 전직원이 새로운 관행과 제도를 개발하기 위한 노력과 의지로서 행정집행을 다변화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가운데, 성북구의 주택정책,

주거안정 대책과 도시계획 정책, 그리고 공원녹지분야에 대해 중점적으로 감사하였습니다.

우리 성북구 지역은 아시는바와 같이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많은 민원과 이해관계의 상충으로 인한 분쟁 등이 노출되고 있는바, 이의 해결과 조속한 사업의 추진, 그리고 새로운 건축심의제도에 의한 주민불이익의 최소화를 위하여 특단의 노력을 기해야 한다는 것이 감사위원의 공통된 지적이자 요구였습니다. 마침 집행부에서는, 지난해부터 본격 가동한 재개발 전담부서를 주축으로, 재개발 전문 팀제를 도입하여 추진하고 있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고 발전적인 측면으로 이해되는 부분이었습니다.

도시정비국의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을 요지하면, 동소문 재개발 아파트 정화조 악취민원에 대한 구청의 해결의지나 노력은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으나, 투입에 대한 산출의 성과가 나타나지 않아, 민원이 종결되지 않고 있는 사례가 있었으며,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에 대한 정책 홍보에 있어, 지나치게 상급부서의 지침에 의존하는 경향으로, 적시에 주민 홍보가 결여되고 있는 사례가 발견되었습니다.

또한 전세자금 융자 미상환에 대하여, 대부기관의 요청이 없다하여 이의 회수 대책을 방치하고 있는 사례가 있는가하면, 북악골프연습장을 관리위탁하면서, 계약시 수탁자의 영업시설 설치비용 일부를 위탁료에서 공제하도록 함으로써, 세입·세출의 균형원리를 무시하고 집행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정릉사회복지관에 대한 하자보수에 있어, 하자보수기간이 경과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의 보수비용 일부가 영조물 관리차원에서 구 예산으로 집행되었으며, 10년 이상된 장기 미준공 건축물을, 과태료의 부과만으로 방치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좀더 적극적인 해결대책을 강구해야 하며, 미준공 건축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근본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입니다.

다음으로 도시계획분야에 있어서 장기 미집행되고 있는 도시계획에 있어서는, 이의

조속한 시행이나 해제등을 통하여 주민의 재산과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 감사위원의, 한결같은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는 전향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만,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대응해야 할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행정계획에 대하여는 행정쟁송이 배제되므로 인하여, 주민의 재산권 침해가 보호되지 못하는 약점이 있는 만큼, 행정이 솔선하여 이를 보호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근린공원내의 공원시설물 관리에 있어서, 주민에 의한 주민의 뜻을 우선 고려하는 것이, 자치행정의 본질이라는 측면에서 검토해야 함에도, 주민 의견이 무시되거나 사장되는 행정은 지양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국소관이 되겠습니다. 건설국은 성북구의 낙후된 도시기반 시설을 확충하고, 지역교통문제를 책임맡고 있는 주요부서로서, 대체적으로 국장이하 전직원이 열심히 그리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감사결과 지적된 부분을 개략하면, 노점상 대책·심의위원회의 운영에 있어, 그 실효성이 결여되고 있는 사례와 차량 경정비업소에 대한 관리부실의 우려가 예상되고 있으나, 이 문제는 교통행정분야에 기구가 증설됨으로써, 보완하게 되리라 판단하여, 그 추이를 지켜보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공공용지의 관리에 있어, 관리의 과학화를 연구하고 추진하여 적절한 관리운용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지역교통문제는 그 정책의 시책입안, 결정, 집행에 있어서, 그 권한이 광역 자치단체나 경찰청에서 독점하다시피 함으로써 주민의 민원 사항이나 의견이, 적재적소에 반영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으나, 적극적 권한이양의 건의와 아울러, 부여된 권한의 효율적 집행으로 그 실효의 극대화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버스정류장 지정문제나, 순환 마을버스의 운영 노선 지정등은, 사전에 충분한 여론 수렴을 거쳐야 하겠습니다.

한편 불법 주·정차 위반 단속에 대한 이의 신청으로, 과태료의 부과를 취소한 사례를 살펴보면 공무수행 차량이 주종을 이루고 있는바, 이로 인한 특혜 의혹이 없도

록 그 처리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며, 적정성과 합법성이 유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독촉고지에 있어 기납부자에게 납부독촉한 사례가 1천여건을 상회한 바, 이로 인한 주민불편이나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토목 하부분야에 있어서는 지장전주 이설의 적극 추진과 명확한 실태파악이 되지 않고 있으며, 도로굴착 허가에 있어 아직도 통합 굴착 방법이 일부 이행되고 있지 않아, 굴착 심의위원회의 기능이, 그 실효성 결여의 의문을 제기받게 하였습니다.

한편, 소규모 사업 집행에 있어, 녹지사업이나 사회진흥 분야에 예산을 전이하여 집행된 사례가 있는바, 향후 주무부서의 예산으로 편성 집행 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지적된 바 있습니다. 이어서 각종 공사부분에 대하여 지적하고자 합니다.

상수도 공사의 굴착 복구, 전기, 통신, 가스사업의 굴착, 복구등은 주민생활의 편의 향상이라는 측면에서, 다소간의 불편은 감수해야 하겠으나, 문제는 행정과 시공현장 및 현실과의 상치점이 문제인 것입니다. 이것은 타상에서의 시공과 현장에서의 시공상의 괴리에 의해 발생하는 주민 불편을 얼마나 최소화 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것은 철저한 감독과 집행을 통해서 시정해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외에도 건설국 분야에서는 북부고속화도로건설에 따른, 주민손해발생 방지책 강구대책, 소규모 사업의 현장 공사 감독일지부실, 하수관 준설시 일정지역이 누락 또는 편중되는 사례가 있어 민원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사례, 하수관로에 관통된 각종 시설물의 이전 추진대책 미흡등이 지적되기도 하였습니다.

이상 도시정비국과 건설국위 지적사항만을 말씀드렸습니다만, 반면에 더욱 권장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할 사례도 몇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성북지역의 숙원이던 미아로 확장공사의 완공과 미아리고개 주변 정화사업이나, 지역특성을 고려한 재개발 전문팀제의 운영, 그리고 미래적 도시설계의 상세계획의 수립

등은 매우 고무적이었으며, 이외에도 월동대책을 포함한 각종 시설, 안전점검 계획이나, 이의 시행은 매우 높게 평가할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은 동사무소 감사에 대한 강평이 되겠습니다.

통반장 일간지 구독에 있어 일간 신문과 지역신문을 이중으로 구독하게 하는 사례가 발견되었으며, 주민의 관심사항인 보안등 관리에 있어 고장수리에 대한 신속 정확한 관리 체계가 다소 미진한 부분이 있는가 하면, 통장회의나 각종 위원회 회의시 지급되는 회의수당 지급이, 실제 참석인원수와 상이한 부분이 적시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구에서 지원된 청소년 선도위원회보조금을 미집행하여 청소년 선도에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한 사례도 지적된 바 있으며, 각종 법규 외적 위원회가 자생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는바, 동행정발전을 위한 방편이기는 하나, 행정력이 개입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하겠으며, 재활용품 판매대금을 관리함에 있어 간담회비등을 집행한 사례가 있는 만큼, 앞으로 제도와 법령 정비를 통해 보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위원회 소관에 대한 개략적인 강평을 하였습니다만 한정된 기간내에 많은 분야를 감사함으로써 깊이있고 내실있는 감사가 되지 못한 점을 인정하면서 좀더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지적사항이나, 시정요구사항, 건의사항 등은 추후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집행부에 통보하도록 조치할 것을 말씀드리며, 앞으로 성북지역의 건설과 지역발전업무에,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협력하여, 주민의 불편한 곳과 원하는 사항을 해결내 나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감사기간 동안 열과 성을 다해주신 지역개발위원회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1996년도 성북구의회 지역개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7時05分 監査終了)

○出席委員 15人

李 鍊 垌	金 順 權	辛 在 福
李 承 魯	金 鈴 基	柳 興 先
丘 在 永	羅 光 洙	鄭 昌 萬
金 甲 濟	文 京 周	趙 基 燦
金 東 殷	徐 榮 振	許 東 翼

○參席專門委員

專 門 委 員	林 洛 吉
---------	-------

○參席公務員

區 廳 長	陳 英 浩
副 區 廳 長	沈 長 錫
都 市 整 備 局 長	朴 石 安
建 設 局 長	鄭 顯 植
住 宅 課 長	林 瑄 彬
再 開 發 課 長	朴 昌 植
都 市 整 備 課 長	黃 義 泰
建 築 課 長	尹 炳 圭
公 園 綠 地 課 長	金 圭 泰
建 設 管 理 課 長	申 聖 澈
交 通 行 政 課 長	宋 榮 鍊
交 通 指 導 課 長	卞 雲 範
土 木 課 長	金 雲 熙
下 水 課 長	李 宗 哲
東 仙 2 洞 長	金 運 煥
鍾 岩 1 洞 長	韓 相 鎭